

6조 반려동물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사업·투자 가속화

(2027년)

반려동물 양육 638만 가구
시장규모 집계 3조4000억
GS리테일
'어바웃펫 매출 255% 성장'
하림
'제품 론칭 4년만에 흑자전환'



GS리테일은 자회사이자 펫 전문몰인 어바웃펫에 대한 투자,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커머스 및 콘텐츠가 결합한 반려동물 플랫폼을 빠르게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도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펼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는 2020년 기준 양육가구 638만 가구, 인구 수 1448만명에 이른다. 시장 규모는 농촌경제연구원 집계 결과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2027년에는 6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제품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14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하림은 2017년부터 일찌감치 가축용 사료 사업을 넘어 하림펫푸드를 론칭,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림펫푸드는 출범 초기 매출액 약 2억원, 영업손실 34억원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매출액 285억9243만원, 영업이익 약 5억8229만원을 기록, 제품 론칭 4년만에 흑자전환했다.

동원F&B는 반려묘용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4년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을 론칭하고 100% 휴먼그레이드 사료 제품을 차례로 선보여 왔다. 특히 국내 최대 수산기업 동원산업이 직접 잡은 신선한 참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동원F&B는 반려동물 시장이 발달한 일본에 1991년부터 30년간 6억개 이상의 펫푸드를 수출해온 만큼 검증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휴먼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국내 사료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일반적인 사료가 아닌, 수제 습식 사료나 이에 버금가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 시장의 경우 이미 인지도가 높은 해외 브랜드가 점유율을 대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점유율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단기간에 수익을 낸다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의 100% 자회사인 풀무원건강

생활도펫푸드브랜드 '아미오(amio)'를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의 '바른먹거리' 이미지를 입힌 건강한 반려동물 먹거리를 만든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다.

풀무원건강생활에 따르면 아미오의 매출은 연평균 30% 가량 성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매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아미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과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GS리테일이다.

GS리테일은 반려동물 시장이 2027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해왔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게 세부 목표다. 이는 보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에 맞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펫푸드에 총 315억원을 투자해 왔으며 현재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GS리테일은 2017년 반려동물 돌보미 중개업체 도그

메이트, 2018년 반려동물 수제 간식 업체 펫픽, 헬스 전문업체 바렘시스템 등에 투자했다. 여기에 장례업체인 그림 21도 밸류체인인 한 축으로 나섰다. 지난해에는 동물 병원 전문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분야에도 신규 투자했다. 동물 병원 경영지원 브랜드 '벳아너스'를 운영하는 ㈜아이엠디에 투자해 포트폴리오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

GS리테일은 온라인 사업 1위업체인 펫프렌즈와 프리미엄 온라인 반려동물 어바웃펫을 통해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사업자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GS리테일의 자회사이자 펫 전문몰인 어바웃펫에 대한 투자와,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커머스와 콘텐츠가 결합한 반려동물 플랫폼을 빠르게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어바웃펫은 프리미엄 반려동물 상품 매출을 론칭 초기보다 255% 성장시켰다. 현재 어바웃펫은 커머스와 콘텐츠가 결합한 반려동물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도 유지하며 자체 체력을 길러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어바웃펫은 네이버로부터 100억원을 유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m

유니세프에 2억달러 규모 필수백신 공급

LG화학
전세계 영유아 8000만명분
소아마비백신 수주량 1위 기록



LG화학이 전세계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아마비백신 등 영유아 필수백신을 대량 공급한다.

LG화학은 14일 소아마비백신 '유폴리오', 5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뇌수막염) 혼합백신 '유폴타'로 유니세프(UNICEF) 입찰에 참여해 총 2억달러 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아마비백신 '유폴리오'

를 2년간 1억달러, 5가 혼합백신 '유폴타'를 5년간 1억달러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이다.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LG화학은 전세계 약 8000만명 영유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소아

마비백신 입찰에서 전체 조달 물량의 30% 이상을 확보, 수주량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메이저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LG화학은 소아마비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연간 6000만 회(도즈) 이상 분량의 '유폴리오' 생산능력을 구축했다.

LG화학은 1996년 B형간염백신 '유폴락스'를 시작으로 2016년 '유폴타', 2020년 '유폴리오'의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승인을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칠레서 '펙수클루' 품목허가 획득

중남미 시장 진출 공략 본격화



대웅제약의 국산 34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중남미 시장 장악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지난달 20일 칠레 공중보건청(ISP) 산하 국립의약품청(ANAMED)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로 대웅제약은 에콰도르(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중남미에서의 품목허가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중남미 두 국가에서 품목허가 신청서(NDA) 제출 10개월만에 신속히 허가를 받아내 해외 진출에서 대웅제약의 완성도 높은 준비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칠레는 중남미 4위 시장규모를 갖춘 데다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주요국

의 허가 참조국으로, 향후 펙수클루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국에서 펙수클루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올해 말까지 품목허가 제출국을 2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총 11개국에 NDA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허가 획득에 성공한 3개국 외에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페루가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페르노리카코리아
전세계 200명 한정
'로얄살루트' 위스키

하이트진로
전통방식 레드와인 '지공다스 라 까브' 출시

프랑스 남부 론 지방와이너리 제품



하이트진로가 고품질 와인을 출시하며 와인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남부 론 지방의 대표적 레드와인 제조 와이너리 '지공다스 라 까브(Gigondas La Cave)'의 와인 2종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956년에 설립된 '지공다스 라 까브'는 현재 73개의 와이너리 제조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다. 포도 수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각 와이너리 제조업체의 농장을 방문하여 와이너리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품질을 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포도 재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기

술을 적용해 품질이 일정한 전통 와인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풍부한 향미와 강하면서도 감미로운 레드와인을 주로 생산한다.

'지공다스 셀러브레이션'은 '지공다스' 아펠라씨옹(AOC)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고급 한정판 와인이다. 최상의 포도만으로 생산량을 제한하며, 풍성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프레스티지 위스키 '로얄살루트'와 영국의 아이코닉한 패션 디자이너 리처드 퀸의 협업으로 탄생한 대담하고 매력적인 하이패션 스타일의 한정판 에디션 '로얄살루트 하우스 오브 퀸 바이 리처드 퀸'을 출시한다.

이번 패키지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장미 꽃잎과 현대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옛지를 가시 무늬로 표현해 냈다.

국내에서 21명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로얄살루트 하우스 오브 퀸 바이 리처드 퀸'은 주요 백화점 및 주류 전문 매장, 그리고 최고급 호텔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셀트리온 지뉴브와 항체 신약 공동연구개발

'샤인마우스' 활용 최대 2종

셀트리온은 국내 혁신신약 개발 회사인 지뉴브와 항체 발굴 및 신약 개발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선행되는 지뉴브의 항체 발굴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뉴브가 보유한 항체 발굴 플랫폼 '샤인마우스'를 활용해 최대 2종의 항체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셀트리온이 라이선스-인 옵션을 행사할 경우, 항체 건당 개발 마일스톤은 최대 330억원, 상업화 이후 누적 매출 10조 달성 시 판매 마일스톤은 최대 9000억원까지 지뉴브에 지급하게 된다.

최근 자연면역과정으로 생성된 항체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마우스를 통해 다양한 항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지뉴브와의 협업으로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세경 기자